

사회

대학등록금 카드 납부제 실효

수수료 갈등 탓...순천대·호남대 등 6곳 그쳐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삼성·비씨 카드 등 7개 주요 카드사의 신용카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곳은 6곳에 그쳤다.

30일 카드업체에 따르면 전국 410여개 대학 가운데 올해 1학기 등록금을 카드로 받는 곳은 72곳으로 전체의 17.5%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14곳 늘었으나 등록금 카드 납부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정부 목표치에는 크게 못자리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비씨카드 결제 대학은 순천대 한 곳 뿐이었으며, 삼성카드도 호남대만 결제 가능하다. KB국민카드도 등록금을 낼 수 있는 대학은 초당대·고구려대·광주교대 3곳이다. 신한카드 결제 가능대

학은 목포대다. 하나 SK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는 지역 가맹대학이 없었다.

카드 납부제는 학기당 400만~500만원이나 되는 등록금을 최대 12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어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러나 대학교 카드사의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 탓에 좀처럼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 카드사가 대학에 제시하는 수수료율은 일반 가맹점 2~3%보다 낮은 1~1.5% 수준이다.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현금 납부를 선호하는 대학들이 손해 보는 장사로 생각하고 협상 테이블에 좀처럼 나오지 않아 등록금 카드 납부제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유일의 청소년휴양시설인 광산구 송학동 광산구유스호스텔이 만성적자를 이유로 위탁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3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산 유스호스텔 16년만에 영업중지

만성적자 시달린 위탁업자 결국 3개월 전 손 떤

광주 유일 청소년휴양시설 '애물단지' 전락 위기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시 광산구 유스호스텔 위탁기관이 운영에서 손을 떼면서 유스호스텔이 3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올해 개관 16년을 맞는 광산구 유스호스텔은 광주에서 유일한 청소년휴양시설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른 위탁업체가 나서지 않을 경우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30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1996년 17억3900만원(국비 9억원, 시·구비 8억3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광산구 송학동 38~3번지에 대지 6926㎡, 연면적 2334.76㎡ 2개동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개관한 광산구 유스호스텔이 지난해 11월부터 문을 닫은 상태다. 개관 당시부터 15년 간 위탁운영을 맡은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이 시설 노후화, 잇따른 광주 인근 숙박

시설 증가로 수요가 줄면서 운영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개관 이후 수련회와 MT 등 청소년 시설과 세미나, 간부수련회, 기도회 등 연수시설로 사용돼왔으나 ▲2006년 1964만원, ▲2007년 1741만원 ▲2008년 1731만원 ▲2009년 2383만원 ▲2010년 3426만원 등 계속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인애동산은 계약이 만료된 지난 1월 9일을 약 3개월여 앞두고 철수했다.

광산구는 유스호스텔이 장기간 방치될 것을 우려해 지난 11월과 12월 급히 위탁자 선정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유스호스텔의 용도를 폐지하고 매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9억원의 국비가 투입된 시설 용도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대체시설이 필요하다는 매각 불가 방침을 통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재정이 열악한 광산구는 직영에 따른 적자를 부담할 수 없어 지난 26일 3차 공고까지 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3차 공고 이후 한 종교단체 운영 법인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지자체의 지원 없이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법인 관계자는 "유스호스텔은 현재로서는 숙박 기능을 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 캠프나 세미나 등을 유치해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하지만 좁은 공간 등으로 인해 이마저도 어렵고 인근에 관광 등 인프라도 부족해 연계할 수 있는 사업도 없다"고 지적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지원을 하는 쉽지 않다"며 "위탁 사업자들이 이용객을 끌어들이 만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국공립대 기성회비 인하 노력을"

이주호 장관, 대학총장협의회서 요청할듯

국공립대 기성회비가 법적 근거가 없어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광주일보 1월 30일 6면)이 나온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기성회비 인하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국공립대에 요청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이주호 장관이 다음달 2일 오후 4시 서울 송파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 올해 등록금 인하에 적극 나서고 특히 기성회비 인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한다고 30일 밝혔다.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로 이뤄진 국공립대 등록금 가운데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6.9%(2009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판결이 아니며 기성회비가 등록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 당장 이번 1학기에 기성회비를 걷지 않을 수는 없지만 대학들이 기성회비를 낮추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교과부의 입장이다.

국공립대총장들은 2일 총회에서 지난 19일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에서 논의된 등록금 인하와 기성회비 충당을 위한 예산 총원 방안도 건의할 전망이다. 하지만 교과부는 이미 국가장학금 1조7천500억원이 책정돼 있는 만큼 또다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 다.

/연합뉴스

Weather forecast for today (오늘 날씨) showing temperature ranges for various cities and a map of Korea. Includes a table for sea temperature (바다) and a 6-day forecast.

Section titled '오늘 최고 15cm 눈 또 '강추위'' (Today's max 15cm snow, still 'strong cold'). Discusses the weather situation in Gwangju and surrounding areas, mentioning snow forecasts and temperature trends.

Advertisement for '말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Don't you hear the horse's voice?). Features a cartoon of a knight on a horse and promotes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s)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전복장이 전문점' (Abalone Restaurant). Promotes '전복장터' (Abalone Market) with images of various seafood dish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reservations.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IELISIA) restaurant. Promotes a '150여가지의 즉석메뉴' (150+ instant menu) and features images of food and a price list for different courses.

Advertisement for '유스퀘어사우나' (YUSQUARE SAUNA). Promotes a 24-hour sauna facility with various amenities and contact information.